



2017 한국패션디자인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변화하는 패션시스템과 중견기업의 역할

이브 생 로랑의 몬드리안 드레스 연구

김숙현, 이세리

To cite this article : 김숙현, 이세리 (2017) 이브 생 로랑의 몬드리안 드레스 연구, 2017 한국패션디자인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40-43

① earticle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학술교육원은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earticle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www.earticle.net

이브 생 로랑의 몬드리안 드레스 연구

김숙현*, 이세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패션디자인전공 석사과정*, 이화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초빙교수

1. 서론

패션은 당대의 사회, 문화, 생활방식 뿐 아니라 각 시대의 예술양식을 반영하며 특별한 통찰과 교류를 통해 발전해 왔다. 패션과 순수예술의 교류는 20세기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1960-1970년대 세계 패션계를 리드하며 문학, 미술 등 다양한 예술에서 받은 인스피레이션으로 창조적 작품들을 다수 발표했던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의 역할이 크다. 특히 생 로랑의 작품 중 몬드리안 드레스(Mondrian dress)는 추상회화의 선구자로 알려진 피에트 몬드리안(Piet Mondrian)의 회화에 나타난 표현방식을 성공적으로 재해석한 사례로서, 오늘날까지도 패션디자인의 원천과 표현 기법 등을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생 로랑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디자이너 생 로랑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연구, 최초의 기성복 라인에 대한 연구, 럭셔리 브랜드와 현대 예술가들의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 생 로랑 작품에 나타난 아트 인스피레이션에 관한 연구 등이 수집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뒤잇는 본 연구는 생 로랑의 역작 몬드리안 드레스 시리즈에 대한 고찰을 통해 순수예술로부터 이어지는 패션디자인의 원천과 동기, 결과와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가치를 탐구하는 데에 목적을 두며 이는 현대 패션과 순수예술의 교류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 범위는 1965년 생 로랑의 F/W 컬렉션 중 몬드리안의 회화 작품으로부터 제작된 6벌의 드레스와 컬렉션 이후 『Vogue Paris Original』를 위해 추가된 1벌의 드레스를 합쳐 총 7벌의 몬드리안 드레스 시리즈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았으며 연구대상에 집중하여 디자인 동기와 원천, 디자인 세부요소, 소재, 패턴, 제작과정, 당대의 반응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위해 국내외 관련 선행연구, 패션전문지, 언론매체 등의 자료 뿐 만 아니라 현재 몬드리안 드레스를 소장하고 있는 해외 박물관들의 웹사이트 및 이메일 교신 내용을 자료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으로서 몬드리안 드레스 시리즈의 디자인원형 분석, 제작과정 분석, 외형 분석 결과를 먼저 제시할 것이며, 그 다음으로 몬드리안 드레스가 갖는 가치를 구체화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생 로랑과 몬드리안 드레스

생 로랑은 여성 최초의 바지 정장, ‘스모킹 수트(Smoking Suit)’를 제안하거나 고급 오프 꾸뛰르 하우스로는 처음으로 기성복 부티크, ‘리브 고쉬(Rive Gauche)’를 전개하는 등

기존의 관습을 깨는 과격적인 디자인과 시도를 보이며 크게 성장하였다. 또 민속의상에서 영감을 받은 의상들과 회화, 문학, 무용, 연극 등 다양한 예술에서 영감을 받은 의상들을 다수 발표하였는데, 특히 19-20세기 시대의 회화작품으로부터의 영감을 패션에 도입하면서 현대 패션의 아트 모드에 초석을 마련했다(Kim, 2011). 이와 같이 예술을 패션에 도입한 동기는 자신만의 클래식하고 화려한 미를 추구하고자 하였던 의지, 그리고 다양한 예술가들과의 교류와 지지로부터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 Cho, 2010).

1) 몬드리안 드레스의 원형

생 로랑은 인터뷰를 통해 몬드리안의 회화에 대하여 자연으로부터 철저한 해방을 구사하기 위해 열린 직선 교차 형태와 강렬한 색을 이용한 명작이라 호평하였는데(Cho, 1989) 몬드리안 드레스는 몬드리안 작품의 영향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듯 장식 없는 단순한 실루엣에 원색의 컬러들과 기하학적인 선, 면이 뚜렷이 나타난다. 몬드리안 드레스 창작의 원천을 제공한 추상회화의 거장 몬드리안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에 유행한 데스틸(De Stijl) 운동을 이끌며 ‘신조형주의’의 문을 연 인물이다. 그는 신지학을 통해 수평과 수직이 만나 영구적인 균형과 보편성을 얻는 형태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였고, 한정된 컬러 사용, 즉 기본요소를 통해 우주적인 관계를 재구성하고자 하였다(Yoon & Lee, 2014). 강렬한 추상성으로 사물의 본질적 조화를 표현하고자 했던 몬드리안은 회화란 기초적 색채와 선, 그리고 형과 색의 추상에 의하여 표현될 수 있다고 보았고, 그의 회화에 나타난 수직 수평선의 비대칭적인 면분할은 공간을 황금비로 조화롭게 구성하였다(Yun, 2009).

2) 몬드리안 드레스의 제작

몬드리안 드레스의 제작은 울저지(wool jersey)의 편직으로부터 시작된다. 울저지는 철저하게 관리된 염색과정을 거쳐 레드, 옐로우를 비롯한 몇 가지 색채의 원단으로 준비되었고, 이후 색리본을 늘어놓으며 색채의 배치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 색채를 분리하는 블랙 라인들은 원단 안쪽에 심지를 덧댄 것들로 준비되었고 전체 안감으로는 차이나 실크가 사용되었다. 가슴다트 여유분을 블랙 라인에 서로 나누어 다트선을 없애는 패턴 기술이 구사되었으며 각 패턴 조각을 연결할 때에는 시접선들이 도드라지지 않도록 오뜨 꾸뛰르의 핸드메이드 공정으로 최대의 정교함과 오랜 작업시간이 소요되었다. 피에르 버제-이브 생 로랑 재단(www.fondation-pb-ysl.net)은 컬렉션 스케치, 타이틀, 모델명, 등장 순서, 스와치, 제작 아틀리에명, 원단 정보, 원단 공급처 등을 기록한 문서들을 보관하고 있는데, 1965년도 F/W 컬렉션의 착장세트(Ensembles Habilles, n.d.) 기록 파일을 통해 몬드리안 드레스의 일부 제작 관련 기록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드레스와 연결된 표시 안에 코트 디자인이 그려져 있어서 드레스와 함께 착장하는 외투가 함께 제작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으며, 전체 의상 구성의 치밀한 계획까지 확인할 수 있다.

3) 몬드리안 드레스의 외형

몬드리안 드레스는 1960년대 유행했던 단순한 시프트 드레스에 몬드리안의 회화 작품을 재현한 외형을 보인다. 치밀한 계획과 오뜨 꾸뛰르 기술을 사용하여 굴곡이 있는 인체 위에 몬드리안의 작가정신과 표현기법을 왜곡하지 않고 색채와 형태를 그대로 표현하였

다. 현재 메트로폴리탄 뮤지엄(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에서 소장하고 있는 대표적 작품을 일례로 그 구체적인 외형을 소개하자면, 이 드레스는 옆목점에서 험라인까지 94cm의 길이에 험라인의 폭이 52cm로 측정되는 드레스로서 화이트, 레드, 블루, 옐로우의 사각 면조각과 수평과 수직의 블랙 라인이 조합된 구조이다. 정면에서 보이는 사각면들은 2.5-4cm의 폭을 갖는 블랙 원단에 의해 분리되어 있다. 각 조각의 절개에는 인체의 굴곡을 자연스럽게 나타내 줄 수 있는 분량이 계획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더욱이 흥미로운 점은 1:1, 1:2의 정수 비례로 떨어지는 수평수직의 분할면 구성 관계이다.

3. 생 로랑의 몬드리안 드레스의 가치

1) 감각적 가치

리처드 마틴(Richard Martin)은 몬드리안 드레스에 대하여 원색으로 표현된 슬리브리스의 직선형 구조가 보여주는 혁신과 비범함을 강조한 바 있다(Lee & Cho, 2010). 몬드리안 드레스는 색채와 형태 표현에 있어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면서 감각적 가치를 발휘한다. 형태의 측면에서 실측 자료에 의해 나타난 수평 수직의 분할면 구성 관계는 1:1, 1:2의 정수 비례로 떨어지는 절묘함을 보인다. 색채의 측면에서는 레드, 옐로우, 블루의 삼원색이 갖는 기본색의 의미, 그리고 삼원색의 사이를 나누고 있는 블랙에 의한 분리 배색의 역할 등이 확실하게 빛을 발한다. 이 감각적 가치를 발휘하는 비범한 드레스를 향해 1965년 WWD는 생 로랑은 패션의 왕의 자리에 올랐다고 평가하였다.

2) 기술적 가치

1965년 『Vogue Paris Original』은 총 13개의 패턴 조각으로 이루어진 몬드리안 드레스 패턴을 판매하여 대중에게 몬드리안 드레스의 기술적 가치를 알린 바 있다. 감쪽같이 숨겨진 닥트 분량, 수직 밴드로 덮여 보이지 않는 지퍼 등의 특이한 방법 등이 공개되었다. 몬드리안 드레스 발표 이후 수많은 카피 제품이 등장하면서 몬드리안 드레스의 기술적 가치는 더욱 크게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가느다랗게 교차하는 블랙 라인, 색색의 면적들로 이루어진 패턴은 쉽게 구현하기 어려운 고난도의 작업 결과물이었다. 드레스의 원단, 심지어 안감을 오가며 전 과정을 관통하는 고도의 기술적 가치 역시 몬드리안 드레스를 특징 짓는 중요한 사실이 된다.

3) 원형적 가치

마틴은 1966년 인터뷰를 통해 생 로랑의 몬드리안 드레스는 시대를 압도하고 있던 플랫폼의 패러다임으로 몬드리안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생각하는 2차원적인 의복을 만들었다고 평가하였다(Mackrell, 2005). 현재 생 로랑의 몬드리안 드레스 시리즈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의 유명 예술 박물관들에 소장, 전시되어 있어 역사성을 가진 예술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한편 몬드리안 드레스의 성공은 프라다, 카스텔바작, 셀린느, 발망, 크리스찬 루부탱 등의 디자인에 의해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어 디자인 창작의 영감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창작 원형으로서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 로랑의 몬드리안 드레스는 그의 컬렉션 전반에 흐르는 예술 지향의 가치를 보여주는 대표적 작품으로서, 단순한 실루엣에 기본조형요소를 표현한 방식은 몬드리안의 예술정신 및 표현양식과 맞닿고 있다. 둘째, 몬드리안 드레스 7벌은 흑백의 대비만으로 이루어진 것부터 옐로우, 레드 등 한 가지 색이 화이트, 블랙의 포인트로 들어간 드레스, 그리고 옐로우, 레드, 블루 등 3색이 화이트, 블랙과 함께 구성된 드레스까지 다양하게 전개되어 있는데, 면적대비가 강조되는 원색의 면 분할 및 블랙 라인의 분리배색 등 색채 조합의 특이성을 구사한다. 드레스 실측에 의거해 수집한 면 분할 수치는 1:1, 1:2 등 황금비율을 보이며, 이로써 회화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외관을 보여주며 감각적 가치를 발휘한다. 셋째, 굴곡 있는 인체 위에 평면의 회화 느낌을 강조하는 몬드리안 드레스 시리즈는 다투 없이 몸매를 섬세하게 감싸는 슈프트 실루엣을 보이는데, 이는 당대의 방직기계를 이용한 울저지 생산 작업, 정교한 염색 과정, 색채 배치 작업, 심지어 접합 작업, 시접선의 최소화를 위한 패턴과 봉제작업 등을 통해 가능하였다. 전체를 관통하는 고도의 수작업 과정은 단순한 외형 속에 숨겨져 있는 기술적 가치를 보여준다. 넷째, 생 로랑의 몬드리안 드레스 시리즈는 발표 이후 최근까지 다수의 많은 후대 디자이너들에게 의해 재해석되고 있다. 즉 그가 예술작품으로부터 인스피레이션을 얻었듯이 그의 작품 자체가 후대의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인스피레이션을 주는 예술작품으로서 존재하며 디자이너 동기를 제공하는 원형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브 생 로랑의 몬드리안 드레스는 패션 디자인의 동기, 외형, 작업과정 등 전반의 측면에서 혁신적 통찰의 결과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

- Cho, K. H. (1989). *복식미학* [Costume Aesthetics]. Seoul: Soohaksa.
- Ensembles Habilles. (n.d.). *Foundation Pierre Bergé-Yves Saint Laurent*. Retrieved April 10, 2015, from <http://www.fondation-pb-ysl.net/fr/Planches-de-collection-657.html>
- Kim, S. Y. (2011). Interchange with art contained in the works of Yves Saint Laurent.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9(2), 283-295.
- Lee, Y. E., & Cho, K. H. (2010). Art inspiration expressed on the designs of YvesSaint Laurent: Focusing on the haute couture collections.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4(1), 163-175.
- Mackrell, A. (2005). *Art and Fashion*. London: Batsford.
- Yoon, W. J., & Lee, H. J. (2014). A research of the correlation of Korean design's feature-in-form and neoplasticism: Jogakbo in the Joseon Dynasty period and Mondrian's neoplasticism. *Journal of Korea Design Knowledge*, 31(-), 75-84.
- Yun, M. H. (2009). A study on golden ratio as a universal principle of modern desig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Design Culture*, 15(3), 279-288.